

제목 :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

담당부서	외교부 > 국제경제국 > 에너지기후변화 환경과	조회수	98
게시일	2011-10-14 09:18		
부서명	외교부 > 국제경제국 >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		
전화번호	02-2100-7708		



제11-911호 배포일시 : 2011.10.14(금)

문의: 국제경제국 공보·홍보 담당관(박흥경 녹색환경협력관) (☎: 2100-7708)

제목 : 러시아 극동지역 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

1. 10월 16일에서 22일까지 블라디보스톡, 하바롭스크, 사할린 등 극동의 주요 3개 거점도시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주정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“에너지 자원 및 건설협력 설명회”가 개최될 예정이다. 금번 설명회는 외교통상부,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, 극동지역 주정부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.

2. 설명회에는 한국가스공사, 석유공사, KOTRA, 해외건설협회 등 공기업·협회와 삼성물산, 현대자원개발, POSCO, 풀림건설 등 대기업과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여 한국의 발전된 석유·가스개발사업 능력 및 플랜트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일 계획이다. 러시아측에서도 주정부를 비롯하여 극동지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.

※ 설명회 프로그램은 협력희망 프로젝트 소개 및 한-러 기업간 개별 비즈니스미팅으로 구성

3. 러 극동지역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풍부한 석유·가스자원과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, 최근 발표된 2011년 상반기 러 극동지역 대외교역량에서 한국은 전체 교역액의 30.9%를 차지하여 1위에 오르면서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.

※ 2011년 상반기 극동지역 교역현황: 한국(46.2억불), 일본(38.2억불), 중국(35.9억불)
2010년 상반기 중 최대교역국은 중국이었으며, 한국은 일본에 이어 3위 차지

4. 금번 설명회는 한-극동지역 교역량 증가에 따라 에너지 자원협력에 거는 러시아 극동지역 주정부 및 현지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, 한국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, 향후 러 극동지역 에너지 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2010. 4월 사할린주지사 참여하에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개최 이후, 하바롭스크주, 아무르주 등 극동지역 주정부는 여러 계기에 한국의 대극동 투자증진 위한 노력 요청

/끝/